

日本の團領에 관한 研究

서울여자대학교 의류학과
教授 金美子

目 次	
I. 머릿말	1) 萎裝束시대의 단령
II. 1. 제1기(奈良시대~平安전기)의 단령	2) 強裝束시대의 단령
1) 문헌에 나타난 단령	III. 맺음말
2) 단령의 형태	참고문헌
2. 제2기(平安후기~江戸시대)의 단령	

I. 머릿말

일본의 단령은 天武天皇 13년(685)에 내려진
 詔에 의해 남녀 모두가 입기 시작하였다. 단령은
 옷깃이 둥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중국 明代
 의 명칭이다. 중국에서도 시대와 용도에 따라 단령
 의 명칭이 많았지만, 단령이란 용어가 明과 우리나
 라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었다.

일본에서는 단령이란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奈良시대에는 有欄, 無欄, 袍, 朝位欄, 欄子服, 黄檀
 欄御袍라는 명칭이었는데 후대의 학자들은 盤領¹⁾
 , 團領²⁾으로 표현했다. 平安시대에는 國風化(日本
 化)되어 단령의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명칭도
 많아져 束帶, 縫腋袍, 闕腋袍, 直衣, 御引直衣, 小直
 衣, 無欄直衣, 狩衣, 褐衣, 退紅, 白張, 水干, 童水干
 등으로 불리웠다. 학자들은 이들의 옷깃을 團領,

盤領, 首上³⁾으로 표현하였다.

필자는 중국과 한국의 단령 연구에 이어서 일본
 의 단령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연구의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 임의로 일본의 단령이라고 하였다.

“단령은 원래 胡服(北朝)으로 隋에 채용되었고
 唐(7C~10C)에 이어져 天子부터 淺人까지 모두에
 게 입혀져서 중국옷이 되었다. 唐은 단령을 주변국
 가에 사여하였으며 吐蕃, 위그르, 발해, 신라, 일본
 등⁴⁾ 많은 나라에 입혀져 東洋服이 되었다. 서양에서
 프랑스 옷이 17C~18C에 유럽 여러 나라에 입혀진
 것과 같은 이치이다.

단령은 수명이 긴 옷 중의 하나로 중국에서는
 明代까지, 우리 나라에서는 현대까지 혼례복, 追慕
 祭의 祭服으로, 일본도 천황의 즉위복, 神宮服으로
 현대까지 착용되고 있다.

단령은 각 나라의 문화·기후·풍토에 따라 명칭

1) ① 北村哲郎, 日本服飾史(衣生活研究會, 東京, 소화59년), p. 29.
 ② 高橋健自, 歷世服飾圖說(思文閣, 京都, 소화50년), p. 51.
 ③ 서상국 역, 鈴木藏, 日本裝束圖解(服裝, 月報, 1983. 9.), p. 44.
 ④ 關根眞隆 奈良朝, 服飾の研究(圖錄編)(吉川弘文館, 소화48년), p. 44.
 2) ① 原田淑人, 唐代の服飾(東洋文庫, 소화45년), p. 209.
 ② 서상국역, 鈴木藏, 日本裝束圖解, p. 44.
 3) ① 太田臨一郎, 日本服制史(上)(文化출판국, 동경, 平成원년), p. 131.
 ② 서상국역, 鈴木藏, 日本장속도해, p. 44.
 4) 拙稿, 中國의 團領에 대한 연구, 服飾 제3호(한국복식학회, 1980), pp. 47~49.

과 형태가 나라마다 다르게 변했으며, 단령의 형태 변화를 통해서 중국과의 관계도 알 수 있는 중요한 옷이다. 일본의 단령에 관한 연구는 많이 되어 있으므로 중국의 단령과 비교할 단계라고 생각하여 연구에 착수하였다.

연구 목적은 일본의 단령이 중국 단령에 비해서 아주 독특하게 변했다. 단령의 어느 부분이 어떻게 변했으며, 변한 이유는 무엇인가를 밝히는데 있다. 연구 범위는 奈良시대부터 江戸시대까지이며 시대구분은 중국 영향기인 奈良시대부터 平安前期(685~894)를 제1기로, 國風化 시기인 平安後期(895)부터 江戸시대까지를 제2기로 구분하였다.

연구 대상은 문헌, 벽화, 초상화, 조각, 풍속화, 실물이다.

II. 1. 제1기(奈良시대~平安전기)의 團領

제1기에는 唐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정치·종교·건축·문화·의복 등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 제1기의 일본의 단령은 唐의 단령과 같았다.

단령에 관한 자료가 많지 않으나 먼저 단령에 관한 문헌을 살펴본 후 실물, 초상화, 조각품, 회화를 통해 형태를 알아본다.

1) 문헌에 나타난 단령

단령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日本書記 天武天皇 13년(685)에 “남녀 모두 有襪, 無襪을 입으며 여밈은 結紐(매듭 단추)와 長紐(긴끈)를 임의로 사용하나 式日이나 행사가 있는 날은 襪衣에 長紐를 사용

하라”⁵⁾는 것이다. 이것은 “天武天皇 11년(683)에 冠位制를 폐지하고 2년 후에 새로운 袍와 袴를 제정한 것으로 유란과 무란은 盤領”⁶⁾ 즉 단령을 의미한다. “同王 14년 正月에 爵位로 칭호를 고치고 位階를 증가하여 60階로 정했고 同年 7월에 朝服色을 정했다. 淨位 이상은 朱花, 正位는 深紫, 直位는 淺紫, 勤位는 深綠, 務位는 淺綠, 追位는 深葡萄, 進位는 천포도색이다.”⁷⁾ 12月 庚寅에는 “황후의 명에 의해 王卿들 55人에게 각각 朝服 한 벌씩을 賜하였다.”⁸⁾ 여기의 조복은 단령이며 “淨位 이상이 親王과 諸王이고, 朱化란 朱垂이며 蓮垂의 異名이며 淺紅色을 말한다.”⁹⁾ 朝服色으로 보아 “唐上元 원년(674) 8월에 개정한 제도”¹⁰⁾를 참고한 것으로 생각된다(표 1 참조). 이후 계속해서 조복에 관한 개정이 있었다.

持統天皇 4년(690)에는 신하들의 조복색을 唐上元 제도와 같게(표 1) 개정했고 옷감과 무늬를 정했다.

“색은 淨大臺 이하 廣貳 이상은 黑紫, 淨大參 이하 廣肆 이상과 正八級은 赤紫, 直八級은 緋, 勤八級은 深綠, 追八級은 深縹, 進八級은 淺縹이다. 옷감과 문양은 綉, 제왕부터 淨廣貳 이상은 一畵一部 綾羅이고 그 이하인 淨大參位부터 신하인 直廣肆位 이상은 一畵二部の 綾羅이다. 上·下 모두 綺로 만든 帶를 띠고 白色袴를 입는다”¹¹⁾고 했다. 무늬에 대해서 北村教授는 一畵一部는 무늬가 一幅에 一部, 一畵二部는 무늬가 一幅에 二部있는 것이라고 했고, 太田先生은 一畵는 옷감(生地) 一巾을 말하며 一部란 一巾의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한줄(一列)

5) 成段九역주, 日本書記(정음사, 1989), p. 516. 日本岩波書店 간행본. 日本書記 卷第二十九, 天武天皇 13年 閏四月 壬午. 又昭曰, 男女, 並衣服者, 有 襪無 襪, 及 結紐長紐, 任意服之. 其會集之日, 着 襪衣而長紐. 唯男子者, 有 圭冠冠, 而着 括緒褌.

6) 北村哲郎, 日本복식사, p. 29.

7) 성은구 역주, 日本서기, p. 519.

8) 성은구 역주, 日本서기, p. 523.

9) 太田臨一郎, 日本복제사(上), p. 58.

10) 拙稿, 中國의 단령에 대한 연구, p. 50. 25史 唐書志, “구당서 45卷, 輿服志, 제25”.

11) ① 성은구 역주, 日本서기, p. 601. 日本書記 卷第三十, 高天原廣野姬天皇, 持統天皇 四年四月 庚申.

② 北村哲郎, 日本복제사, p. 30.

③ 太田臨一郎, 日本복식사(上), p. 61. 基朝服者, 淨大臺已下, 廣貳已上黑紫. 淨大參已下, 廣肆已上赤紫. 正八級赤紫. 直八級緋. 勤八級深綠. 務八級淺綠. 追八級深縹. 進八級淺縹. 別淨廣貳已上, 一縹二部之綾羅等, 種々聽用. 淨大參已下, 直廣肆已上, 一畵二部之綾羅等, 種久聽用. 上下通用綺帶白袴. 其餘者如常.

〈표 1〉 舊唐書에 의한 常服의 변천

	3품 이상			5품 이상			6~7품			8~9품			庶人	
	武德 (621)	貞觀	上元元年 (674)	武德	貞觀	上元	武德	貞觀	上元	武德	貞觀	上元	武德	上元
옷감	大科紬綾 및 羅	5년 龜甲雙巨十花綾		小科紬綾 및 羅	5년 龜甲雙巨十花綾		雜小綾 交梭雙縹紗布	5년 3品과 같다		紬縹布	紗布 및 雜小綾		紬縹布	
색	紫	4년 紫 5년 綠	紫	朱	4년 5년 緋 綠	4품 5품 深 緋 淺 緋	黃	4년 5년 綠 綠	6품 7품 深 淺 綠 綠	黃	4년 青 5년 青	8품 9품 深 淺 青 青	黃	
飾	玉			金			銀			鍮石			銅鐵	
笏	象 前挫後直			象 前挫後屈			竹木 上挫下方			竹木 上挫下方				
冠	折上巾			折上巾			折上巾			折上巾			折上巾	
靴	六合靴			六合靴			六合靴			六合靴			六合靴	
帶		鍮石 (5년)	金玉		鍮石 (4년)	金		鍮石 (5년)	銀		鍮石 (5년)	鍮石		銅鐵

※ 笏은 唐이래로 위는 圓, 아래는 모난 것이 있어 分別이 없어졌다(自有唐已來 一列上圓 下方會不分別)

※ 貞觀 四年(630) 婦人從夫色 雖有令仍許通著黃

※ 總章元年(668) 始一切不許着黃

의 문양이 배치된 것이고 二部란 두개씩 옆으로 나란히 하여 한줄로 배치한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제정된 제도는 3개월 후인 “7월에 公卿百寮가 新制朝服을 입기 시작했다.”¹²⁾ 3年 후에는 “백성의 옷을 黃色衣로, 노비의 옷은 皂衣로 정했는데”¹³⁾ 그 형태는 조복인 단령과 같았음을 衣服令으로 알 수 있다. 즉 “衣服令에는 无位는 서인服制와 같으며 모두 皂纓頭巾을 쓰고 黃袍(재봉과 體制가 같음)를 입고 허리에 烏油腰帶를 띠고, 가죽신을 신는데 이것은 조정의 公事服이다. 通常 靱鞋(草鞋)을 신는다. 家人과 노비는 橡黑衣이다”¹⁴⁾라고 있다. 이것으로 보아 일본도 중국과 같이 남·녀 상·하가 단령을 입었음을 알 수 있고, 상·하의 구별은 색, 옷감, 문양으로 하였다.

“文武天皇 大寶元年(702) 大寶令에 의해 禮服, 朝

服, 制服의 제도가 정해져 官位와 位階의 구별을 할 수 있는 점과 朝廷의 公事의 輕重에 따른 차이를 둘 수 있는 점이 큰 변혁이며 조복색의 개정도 있었다.”¹⁵⁾ “다음해 正月 朝賀式에 親王과 大納言 이상은 禮服을, 諸王과 신하들은 朝服을 입었다.”¹⁶⁾

元明天皇 원년(708)에는 단령 제작법이 처음(685)과 달랐던지 단령의 올바른 제작법과 옷감 등에 대한 禁令을 내렸다. “수구넓이는 8寸(23.7cm)부터 1尺(29.7cm) 이하이며 옷깃은 붙여 만들며 부득이 소매가 좁고 작으면 옷깃도 가늘고 좁게 하도록 했고 동왕 5년에는 諸司人의 의복을 수구넓이가 너무 좁거나, 옷길이가 너무 길거나, 여밈(裱)이 좁게 여며지거나, 걸을 때 옆트임이 많아서 속옷이 많이 보이는 것은 무례하다고 엄금했다. 동왕 12월에는 无位 조복은 지금부터 모두 欄黃衣

12) 상은구 역주, 일본서기, p. 604.

13) 상은구 역주, 일본서기, p. 605.

14) 太田臨一郎, 일본복제사(上), p. 62. 「衣服令」によると「无位(謂, 庶人服制亦同也). 皆皂纓頭巾. 黃袍(謂, 裁縫體制, 如朝服也). 烏油腰帶. 皮履. 朝廷公事則服之. 尋常通得草鞋. 家人奴婢. 橡黑衣」

15) 北村哲部, 일본복식사, p. 29.

16) ① 北村哲郎, 일본복식사, p. 31.

② 太田臨一郎, 일본복제사(上), p. 64.

를 입되 廣이 1尺 2寸 이하이며, 無位者의 조복도 제정하였다.”¹⁷⁾

“元正天王은 2년(716)에 內外諸可는 얇은 紗로 만든 단령(博紗朝服)을, 6位 이하는 羅縠頭를, 武官의 복두는 後脚이 3寸을 넘지 말라고 엄한 금령을 내렸으며”¹⁸⁾ 大寶領을 養老 2년(718)에 修正하였다. “衣服令에 있는 文官과 武官의 朝服을 요약하면 친왕 이하 諸臣 5位 이상은 皂羅頭巾·예복과 같은 색의 衣·白袴·牙笏·金銀裝腰帶·白襪·烏皮履·袋이고, 6位 이하는 皂縠頭巾·衣·白袴·木笏·烏油腰帶·白襪·烏皮履이다. 옷감은 5位 이상은 有紋綾, 6位 이하는 無紋縠이며 색은 親王, 諸王, 諸臣 1위는 深紫, 2·3위는 淺紫, 4위는 深緋, 5위는 淺緋, 6위는 深靑, 7위는 淺靑, 8위는 深縹, 初位는 淺縹이다.

“武官의 조복”²⁰⁾도 衣服令에 신분과 직책에 따라 세밀하게 규정되었지만 기본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衛府督佐: 羅頭頭巾·位襖·金銀裝腰帶·金銀裝橫刀·白襪·烏皮履, 志 이상: 皂頭巾·皂縠·位襖·烏油腰帶·烏裝橫刀·白襪·烏皮履, 兵衛: 皂縠頭巾·皂縠·位襖·烏油腰帶·烏裝橫刀·弓箭·白脛巾·白襪·烏皮履, 主師: 皂縠頭巾·皂縠·位襖·烏油腰帶·烏裝橫刀·白脛巾·白襪·烏皮履, 衛士: 皂縠頭巾·桃染衫·白布帶·白脛巾·草鞋·橫刀·弓箭 또는 槍이다.

의식 때 더하는 것(창, 활, 화살)과 바꾸는 것(갑옷, 신)에 대한 자세한 규정과, 수차에 걸친 개정 에 관해서는 약한다.

여기서의 位襖는 無欄關腋이다.

이후 806년과 807년 및 810년에 服色의 부분적인 개정이 있었다.

“淳和天皇 5년(828)에는 수구넓이는 1尺 2寸

이하, 옆트임은 1尺 4寸 이하, 옷길이는 바지의 欄이 보일 정도의(땅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긴길이) 길이로 하라는 令”²¹⁾이 있었는데 708년(주 17)의 수구넓이보다 2寸이 넓어졌다. 넓어지는 현상은 唐과 같다.

천황은 관리복뿐만 아니라 백성의 옷도 당나라 옷과 같이 右襟으로 고치도록(大寶 3년, 719) 했으나 잘 지켜지지 않아서 100년 후에 남·녀 의복을 唐風으로 고치라는 令(818)을 내렸다. 이렇게 계속 해서 노력하였기 때문에 단령은 唐風을 유지하였으나 冠은 변화하였다.

2) 단령의 형태

단령의 형태를 알 수 있는 자료는 문헌자료에 비해 적다. 聖德太子御畫像, 五重塔塑像, 大大論(正倉院), 吉士長丹像, 野見宿禰參內圖, 正倉院寶物이 있다.

聖德太子(594~623, 推古天皇섭정, 圖1)는 683년에 제정한 “漆紗冠과 朱華色衣를 착용했고 白色袴를 입고 烏皮履를 신었고 笏을 들었다.”²²⁾ 옷깃은 과임이 적은 좁은 단령이며 옷길이는 길고 소매는 좁고 길며 右襟이고 옆트임이 있다. 帶에 칼과 주머



〈도 1〉 聖德太子像 宮内廳

17) ① 北村哲郎, 일본복식사, p. 38.

② 太田臨一郎, 일본복제사(上), pp. 77~78. 續日本記 卷5권, 元明天皇 5년 十月 十一日.

18) 太田臨一郎, 일본복제사(上), p. 79. 속일본기 권7, 元正천황 2년 10월.

19) ① 北村哲郎, 일본복식사, pp. 37~40.

② 太田臨一郎, 일본복제사(上), pp. 81~84, 96.

20) ① 北村哲郎, 일본복식사, p. 39.

② 太田臨一郎, 일본복제사(上), p. 96.

21) 太田臨一郎, 일본복제사(上), p. 115.

22) 高橋健自, 역사복식도설, p. 43.

니를 찼다. 좌·우의 두 왕자도 태자와 같은 단령을 입고 있다. 왕자의 머리모양은 상고시대 소년의 머리형태인 美豆良(미즈라)를 하고 있다.

法陸寺五重塔의 첫층 東·西에 있는 2인의 南侍者像은 성덕태자와 같은 단령을 입고 있으며 711년에 제작된 95점의 宮人남·녀侍, 비구, 거사, 보상중의 2人이다. 78점이 국보로 지정되었다.²³⁾

圖 2는 “天平 17년(745) 寫經反古(麻紙)여백에 인물상과 함께 大大論이라고 쓰여있다. 寫經生이 동료들 그린것 같으며 幞頭는 二脚을 頭上巾子の 앞으로 맸고, 짧은 소매 盤領衣에 帶를 매었다.”²⁴⁾



〈도 2〉 反古紙(燻色麻紙)의 인물상(정창원 보물)



〈도 3〉 永泰公主墓 石槨線刻畫(당대의 복식)

⁴⁾ 圖 2의 복두와 단령은 중국의 복두와 단령(도 3, 4)과 같다.



〈도 4〉 樹下人物圖(Turfan. 唐시대, 동경국립박물관)

이 복두를 太田臨一郎은 “大化 3년(647)冠位 13階를 정할 때 通常에 사용하는 黑絹으로 만든 鏡冠을 정했는데, 鏡冠은 大大論의 頭巾이다. 天武 天皇 10년, 11년(682)의 복식금령에 따라 사용되지 않았다”²⁵⁾고 했다. 그러나 복두가 서민사이에 오랫동안 사용되었음을 法隆寺 金堂천정판의 낙서(도 5)와 唐招提寺 金堂의 梵天像台座와 帝釋天像台座에 그려진 낙서(단령착용자 4人)로 알 수 있다.



〈도 5〉 法隆寺 金堂 천정판의 낙서

23) 久野健, 原色の美術 제2권, 法隆寺(小學館, 동경, 소화41년), pp. 195~202.

24) 高橋健白, 역세복식도설, p. 46.

25) 太田臨一郎, 일본복제사(上), p. 41~43, p. 55.

26) ① 週刊朝日百科, 日本の歴史 46, 佛教受容と渡來文化(소화56년, 조일신문사).

② 주간조일백과, 日本の歴史 50, 宮都의 생활과 지방.

“이것은 7C 후반경의 풍속을 전하는 귀중한 자료로 공사감독 혹은 渡來工人을 그린 것 같다”²⁶⁾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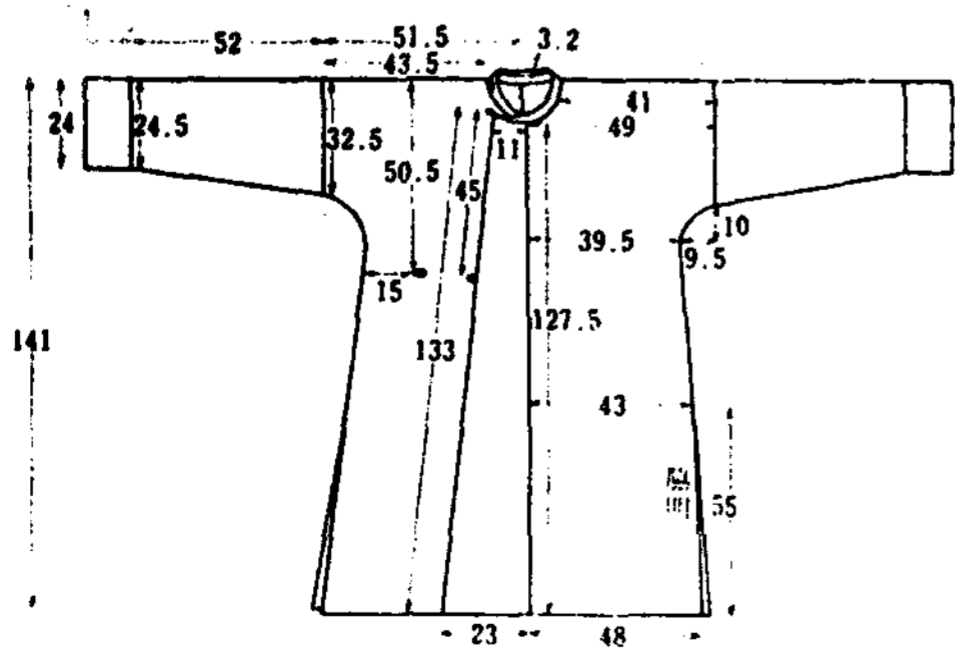
도 6은 佐渡國分寺跡에서 발굴된 기와로 복두와 단령을 착용하고 흠을 든 인물상이 새겨져 있다.



〈도 6〉 佐渡國 分寺跡出土瓦
(眞野町 지정문화재)

이 절은 天平 13년(714) 聖武天皇의 발원으로 전국 60여국에 鎮護國家寺인 國分寺를 약 20년에 걸쳐 조성한 절 중의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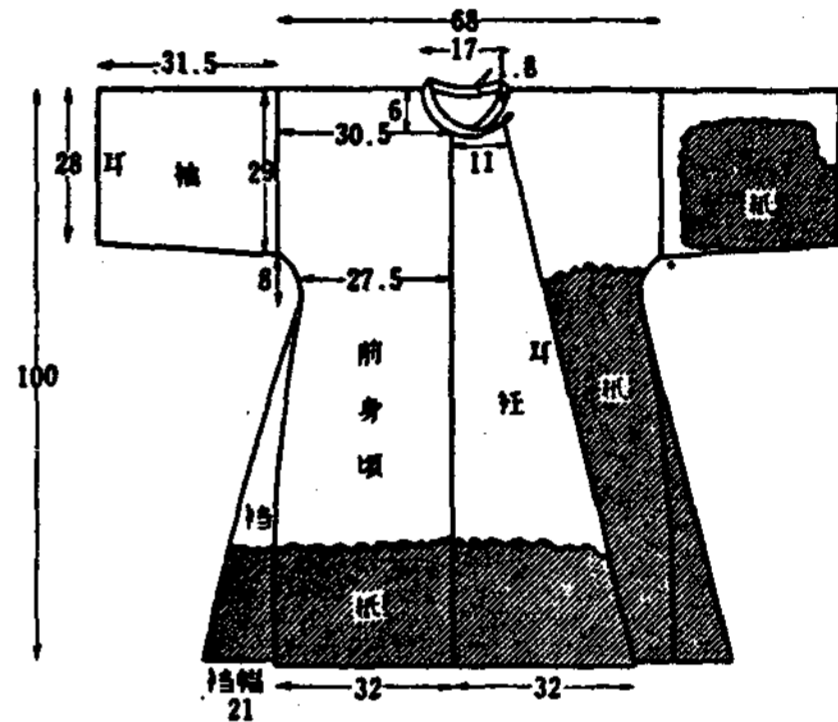
東大寺의 正倉院寶物 중에는 단령실물이 10여종 있어 그 당시의 단령형태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며, 紀年(732년)이 있는 大歌袍(도 7)와 脫襪子, 三台襪子가 있다. 大歌袍의 안설 안쪽에 東大寺大歌袍, 天平勝寶四年四月九日이라고 묵서되어 있다. 關根眞隆의 「奈良朝服飾의 研究 圖錄(實測圖)」에는 단령에 袍(10종)와 襪子(2종)가 있다. 袍를 분석하면 3종으로 분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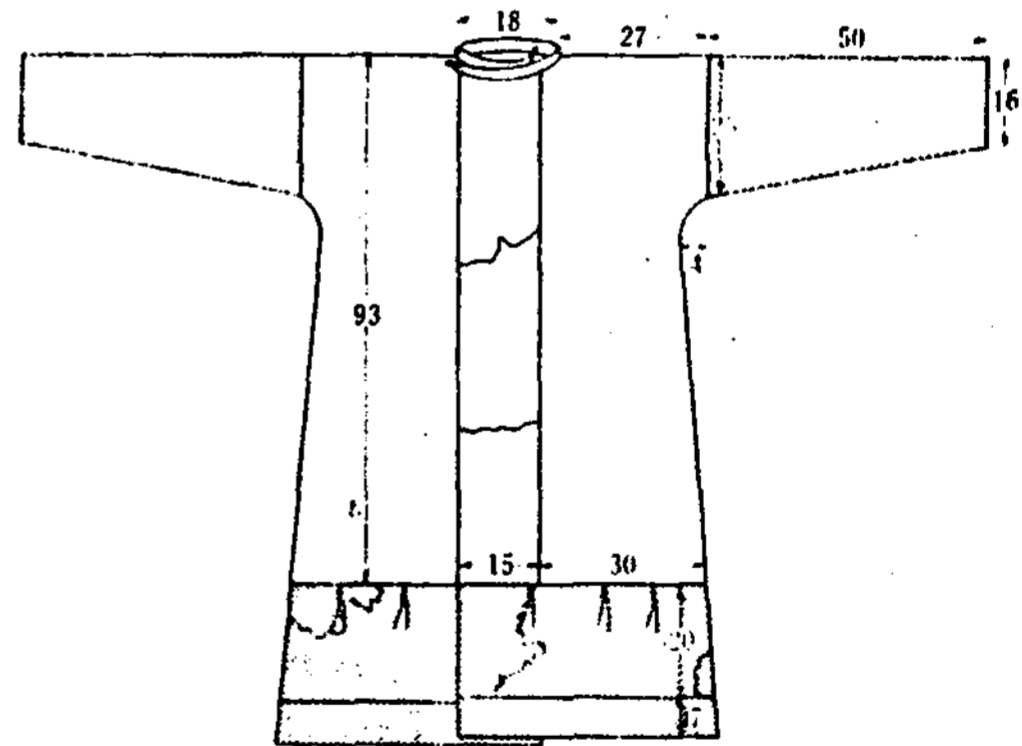
〈도 7〉 大歌袍(청창원)

• 단 령

- 縫腋(옆트임 없음)
- 무가 있는 것 : 女布袍(이것만 左衽) (도 8)
- 무가 없고 난이 있는 것 : 崑崙袍(도 9)
- 闕腋(옆트임 있음)
- 大歌袍와 같은 것 : 紅縹纈纈布袍. 白纈單袍. 笛吹袍. 紫纈袍殘欠. 紅纈單袍殘欠.
- 端袖없는 大歌袍 : 黃布袍. 布袍(久米淨衣,)



〈도 8〉 女布袍(정창원)



〈도 9〉 崑崙袍(청창원)

三台襪子(도 10)와 渾脫襪子는 大歌袍와 치수만 다르고 형태는 같다. 원래 오자는 무관복(주 20)이며 무란결액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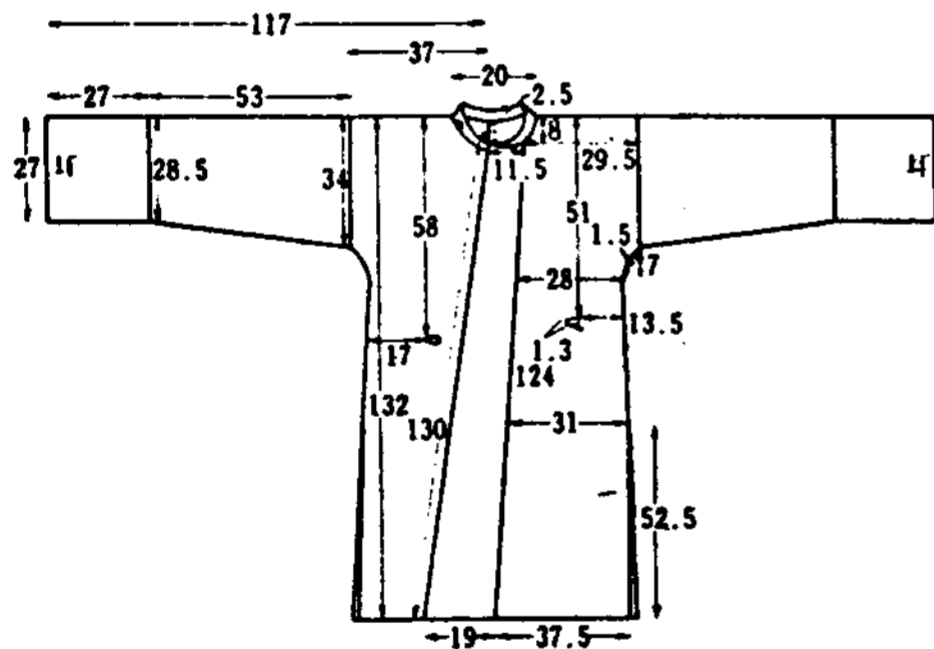
단령의 치수(표 2 참조)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옷깃 넓이는 1.8~3.5cm로 좁으며, 직선으로 재단하여 목에 둘러댄 것이다. 大歌袍의 옷깃(도 7)은 폭 3.2cm, 길이 76cm의 직사각형이며 右측, 끝은

〈표 2〉 正倉院賣物中 常服형태포(단령)의 實測表(cm)

袍 名	옷길이	깃			고 대	위 섹 (左안깃) (右결깃)	화 장	수구넓이 (端袖넓이)	옆트임	겨드랑 밑과임	색과 옷감	진동
		폼	파임	넓이								
大 歌 袍	141	39.5		3.2	16	11	115.5	24(11.5)	55.5		결녹(綾) 안백(施)	32.5
紫 施 袍	135.5	39.5	7		19	(12)12	114	26.5(13.5)	44	5.5	紫 施	33
布袍(夕米淨衣)	118		10	2	15	()11.5	103	21.5()	35	4.5	布	29
紅縹縹縹布袍	125	32	5.5	3	20	(12)12	114	25(20)	47		紅 布	30
白 施 單 袍	100	27	7	2	14	()10	107	20 21	44	6.5	白 施	25
紅 施 單 袍	110	24		3.5	20	()10	102	(12)12	50	6	紅 施	29
黃 布 袍	122	26	5	3.5	19	(14)14	96.5	27()	53	2	黃 布	31
笛 吹 袍	125	33				9	115.5	27(11.5)	50	8	결紅染縹縹 안綠 施	32
崑 崙 袍	113				18	15	86	16	난넓이27	4	소매:黃錦, 안:白施 깃:白施袷, 란:紫綾	25
女 布 袍	100	27.5	6	1.8	17	(11)좌임	65.5	28	무넓이23	3	布	29
三 台 襪 子	130	28	8	2.5	20	(11.5)11.5	117	27(27)	52.5			34
渾 脫 襪 子	90	20.5	5.5	1.8	12.5	(11)8.5	93.75	18.2(18.5)	38	3		26

※ 奈良朝服飾の研究 圖綠縹의 실측도를 보고 작성한 것임



〈도 10〉 三台襪子(정창원)

뾰족하며 매듭단추가 있는데 12cm부터 사선으로 재단한 긴 칼형이다.

옷길이(100~135.5cm), 폼(24~39.5)은 體格 혹은 옷의 용도에 따라 다양하며, 화장은 86~115.5cm로 대부분 길고, 수구는 16~28cm로 좁은 편이며, 옆트임(38~55cm)은 옷길이에 비례하여 길었다.

無欄은 10점이고 有欄은 崑崙袍 하나 뿐인데

넓이 27cm의 난에 주름이 잡혀 있다. 난에 대한 견해차이를 살펴본다.

太田선생은 “有欄이란 衣의 길이가 길어 무릎 밑 까지 오는 것이고 無欄이란 옆을 꼬매지 않아 옆트 임이 있는 것을 말한다”²⁷⁾고 했으며 北村교수는 “무란이란 옆을 꼬매지 않아 옆트임이 있는 것이며 유란이란 긴 형질을 주름 잡아 袍의 단에 붙여 보행 에 편하게 한 것이며 이 두 형식이 후에 유란→봉 액, 무란→결액이 되었다”²⁸⁾ 町野とく선생은 「正倉院御物伎樂裝束の復原的研究」에서 난을 2가지로 만들었다. 崑崙袍의 난은 2.5cm넓이의 주름을 잡았 고 太孤父袍의 난은 뒷중심선에 맞주름(총넓이 7cm)을 잡고 양 옆에는 트임을 주었다.

필자의 견해는 고구려 袍의 밑단에 이색선을 대듯이 난도 그냥 붙였다고 생각한다.

첫째, 北周(557~581)의 단령을 돈황벽화²⁹⁾를 통해 살펴본 결과 3종류가 있었다. 옷깃, 수구, 섹, 밑단에 이색선이 있는 단령이 제일 많고(78점) 같은색 옷감으로 선을 댄 것이 다음(21점)이고

27) 太田臨一郎, 일본복제사(上), p. 56.

28) 北村哲郎, 일본복식사, pp. 29~30.

선이 없는 단령이 제일 적었다(10점).

단령의 형태는 몸에 꼭맞고 길이가 무릎정도로 짧으며, 소매는 좁고 손목까지 오며, 여밈이 중심선에서 만나며, 옆트임은 없는 것 같다. 북위의 단령과 같다.

둘째, 北齊校書圖(도 11)에서 북제(550~577)



〈도 11〉 北齊校書圖(大唐의 繁榮)



〈도 12〉 五代 曹義金像

의 왕자(앉아 있음) 앞에 서 있는 학자의 단령은 난이 무릎 위까지 오며 얇은 옷감이어서 바지와 靴의 모양이 비친다. 주름은 없다.

셋째, 중국의 수·당 五代의 회화, 조각 등에 나타난 많은 단령을 조사했으나 밑단에 횡폭을 붙였고 주름과 옆트임이 없다(사실적인 그림에도 주름표현은 없었다).

2. 제2기(平安後期~江戸時代)의 단령

“平安後期는 遣唐使가 정지된(894) 때부터 平씨의 멸망(1185)까지이며 藤原씨를 중심으로 한 궁정 귀족문화의 꽃이 피었던 시대이다. 견당사의 폐지에 따라 대륙과의 국교가 적어져 대륙의 영향을 받을 기회가 적어진 점과 일본 내부에서도 이제까지 받아들인 대륙문화를 소화하여 독자적 문화를 이룩할 만한 축적된 힘에 의하여 國風化가 이루어져서 日本獨自의 문화를 형성하였다.”³⁰⁾ “仁明朝에 일본의 음악인 舞樂의 탄생, 가나의 발생, 서도의 발달, 寢殿造의 형성, 일본풍의 그림과 불상의 완성, 宮廷의 발달 등이 그 예이며 복식도 예외는 아니었다. 천황과 귀족들은 풍부한 재력과 특권으로 궁정의 연중행사, 연회, 사냥 등 유희적이며 사치한 생활을 영위했다. 이에 따라 복식은 아름답게 치장하는 것이 주목적이 되었고, 형식이나 색채미를 강조한 儀禮服이 발달했으며, 행사나 연회 때의 복식이 달랐으므로 그 종류가 증가되고 분화되었다. 율령에 정해진 중요한 의식이 소규모로 행해지고 견당사의 폐지로 외교사절을 맞는 공식행사도

29) 北周(557~581)의 단령 착용실태

단령종류	돈황 290굴 佛傳圖	돈황 296굴 五百도적燻佛因緣	돈황 299굴 江キーマ本生	돈황 428굴 薩埵太子捨身飼虎	계
살색단령(無襖)			2		10
흑색단령(無襖)		6	2		
흑색단령(살색선)		37			
살색단령(흑선)	36				78
연두단령(흑선)	1				
흑색단령(홍선)				2	
홍 단 령(흑선)				2	
홍 단 령(홍선)				4	
살색단령(살색선)		7			
백 단 령(백선)		10			21
계	37	60	4	8	
					109

없어져 예복을 단지 即位式에만 입다”³¹⁾가 “明治王 즉위 때(1868)부터 폐지되어서 朝服인 束帶가 통상 예복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예복이 퇴화 되고 속대는 平安朝부터 明治초기까지 왕과 搢紳부터 武將諸侯가 公事儀式, 경축일의 正服으로 입혀졌고 현재도 大禮時에 입고 있다.”³²⁾

속대의 구성은 冠·袍·半臂·下襲·祖單·表袴·大口·襪·石帶·靴笏·魚袋인데 본 논문에서는 袍만 다룬다.

12C에는 강한 풀을 먹인 포를 입게되어 모습이 딱딱하므로 強裝束이라했는데 이에 비해 이전의 모습은 부드러워 軟裝束, 萎裝束이라 했다.

1) 萎裝束시대

萎裝束의 단령(도 13)은 제1기의 단령보다 옷깃 파임이 많아지고, 품이 넓어지고, 옷길이가 길어지고, 소매넓이도 넓어졌는데 이것은 중국단령의 변화이기도 하다(도 11). 萎裝束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자료는 山城國葛野郡松尾神社 男神像(도 13, 국보 藤原시대 초기작품), 藥師寺 神像板繪(중요 문화재, 寛治年間(1086~94)의 그림을 1296년에

다시 그렸음), 重文和歌山 家津御子大神像(10C~11C작품), 重文岡山 高野神社 門神像(1162년 造像 기록이 있는 木像), 聖靈院 聖德太子7才座像(天仁年間(1108~1110) 제작), 藤原鎌足肖像畫(江戸 중기 제작)가 있다.

2) 強裝束(도 14)시대

12C 이후 단령은 딱딱하게 되며 다양하게 분화되어 종류가 많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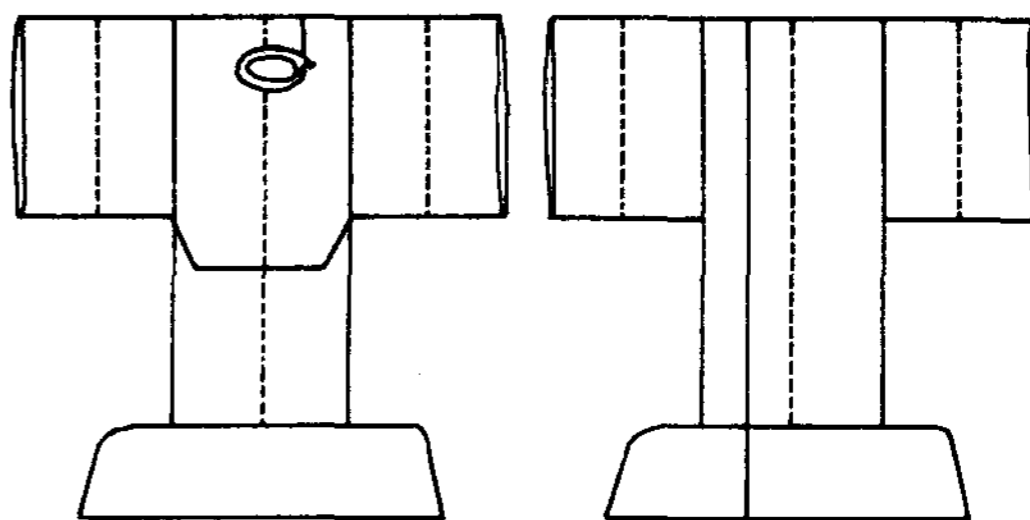
포의 종류에는 옆트임이 없는 縫腋袍(도 15)와 옆트임이 있는 闕腋袍(도 16)로 大別된다. 봉액포를 입는 때에 따라 束帶, 布袴, 衣冠이라 하며, 색, 문양, 옷감규정이 없는 것을 直衣라고 했다. 봉액포의 형태가 약간 다른 御引直衣, 小直衣, 無欄直衣가



〈도 14〉 強장속(圖說·日本服裝史)



〈도 13〉 萎장속(松尾神社 男神象)



〈도 15-1〉 裝束圖式의 봉액포 뒤 〈도 15-2〉 봉액포 앞 (역세복식도설)

30) 진홍섭 역, 久野健외 2人 공저, 日本美術史(열화당, 1978), p. 45.

31) 北村哲郎, 日本복식사, pp. 48~52.

32) 서상국 역, 日本장속도해, 복장월보 1983. 6, p. 55.

33) ① 北村哲郎, 日本복식사.

② 太田臨一郎, 日本복제사(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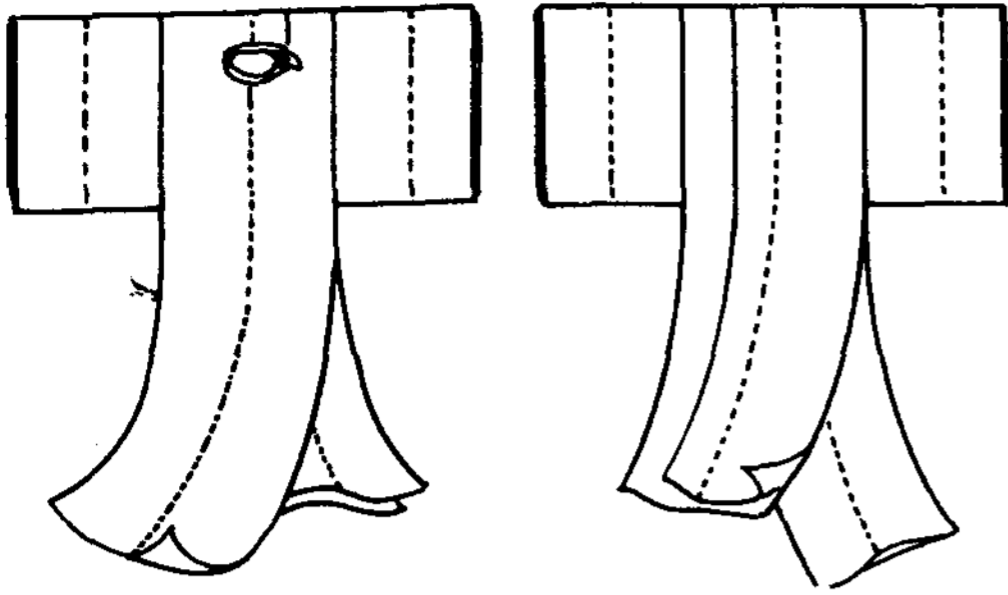
③ 高橋健白, 역세복식도설.

④ 서상국역, 日本장속도해.

⑤ 永鳥信子, 日本服飾史(藝艸堂, 동경, 소화43년).

⑥ 八束清貫, 裝束の知識と着法(文信社, 동경, 소화37년).

⑦ 遠藤武, 圖說·日本服裝史(文化출판국, 동경, 1990).



<도 16-1> 장속도식의 꺾액포 앞 <도 16-2> 꺾액포 뒤
(역세복식도설)

있다. 꺾액포의 형태가 변한 狩衣, 半尻, 水干이 있고 狩衣는, 색에 따라 淨衣, 退紅, 白張이라 했다. 자료는 초상화, 회화, 문헌, 실물 등 많다. 종류 별로 살펴본다. 참고한 문헌³⁴⁾의 내용이 비슷하여 註는 약한다.

(1) 束 帶

포의 형태는 12C에 強裝束이 성립된 이래 크게 변한 것이 없다. 문관의 봉액포(도 15)와 무관의 꺾액포(도 16)의 형태는 1692년에 간행된 裝束圖式 2권에서 알 수 있다(원본은 1571년본이다). 행사에 따라서 文官도 꺾액포를 武官도 봉액포를 착용한다. 포의 색은 10C 말경에 4位 이상은 흑, 5位는 蘇芳, 6位는 纁로 정해졌다. 옷감은 겨울(10월 1일~3월 말일)은 겉은 綾 안은 平絹이며, 여름(4월 1일~9월 말일)은 穀 또는 紗 등의 얇은 옷감으로 된 홉옷이며, 6位 이하는 平絹이었다가 후에 穀으로 정했다. 문양은 일반적으로 窠文, 唐草였으나 平安 말기는 가문에 따라 雲立通, 輪違 등의 특정문양을 사용하게 되었다.

봉액포는 제1기의 有欄보다(표 3 참조) 크고 길어졌으며, 소매도 넓어졌고, 옷깃은 딱딱해졌다.

<표 3> 단령의 변화

시 대	제 1 기	제 2 기	
옷 형태	有欄과 無欄	봉액포·꺾액포	狩衣
옷 깃	옷감2겹으로 만듦(유연)	옷감 안에 심을 두겹게 넣음(딱딱함)	봉액포, 점액포와 같음
품	넓은 편임	더 넓어짐	좁은 편임
옷 길이	짧음(신과 바지부리가 보임)	땅에 끌리게 길어짐(걸어 올려 입음)	제1기와 같음
소	길이	길 다	길 다
	넓이	좁다(1尺 2寸 이하)	넓어짐(2尺 이상)
매	트임	없음	진동뒷쪽 5寸정도만 붙고 다 트임
난	유란: 난을 그냥 붙임	봉액포: ① 리사끼 새로생김 ② 앞중심과 뒷중심에 맞추름 잡음	없 음
풀	풀 먹이지 않음(유연)	풀 먹여 뽀뽀함	봉액포, 점액포와 같음

옷감에 강한 풀을 먹이거나 뽀뽀한 옷감을 사용하여 착용모습이 딱딱하게 되었다. 특징적인 변화는 뒷길 허리부분의 주머니처럼 재봉한 하꼬에(はこえ)와 난의 좌우 양옆으로 나간 아리사끼(ありさき)가 생긴 점이다.

꺾액포도 봉액포와 같게 변했다. 즉 크고, 길고, 딱딱하고, 소매가 넓게 됐다.

(2) 直 衣

형태는 봉액포와 같으나 색, 옷감, 문양에 일정한

규정이 없어 雜袍라고도 한다. 천황이나 公家남자들의 평상복, 私的인 방문복이다. 指寬(바지)을 입고 烏帽子를 썼다. 冠을 쓸 경우는 寬直衣라고 한다.

(3) 御引直衣(下直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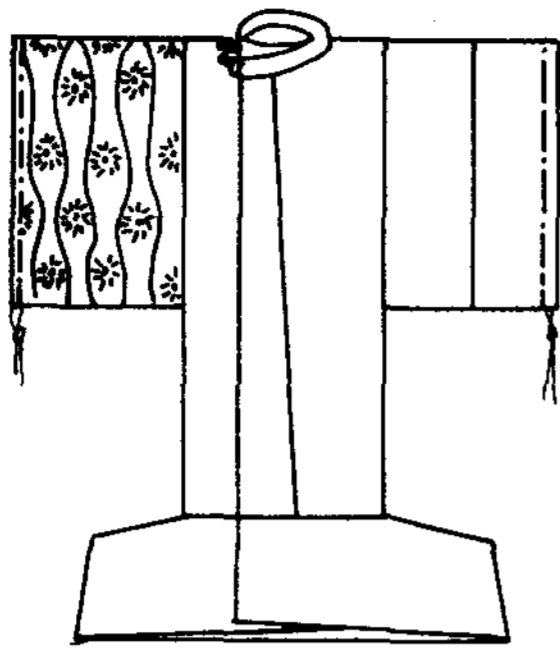
천황만 착용하며 直衣보다 길이가 길고 밑단을 끌리게 입었다.

(4) 小直衣(도 17)

형태가 狩衣와 直衣를 절충한 것으로 狩衣 밑단

34) 遣隋使: 推古천황 15년(607) 시작, 16년: 22년 3회 파견.

遣唐使: 舒明天황 2년(630) 시작, 894년 폐지되기까지 260년간 18회 파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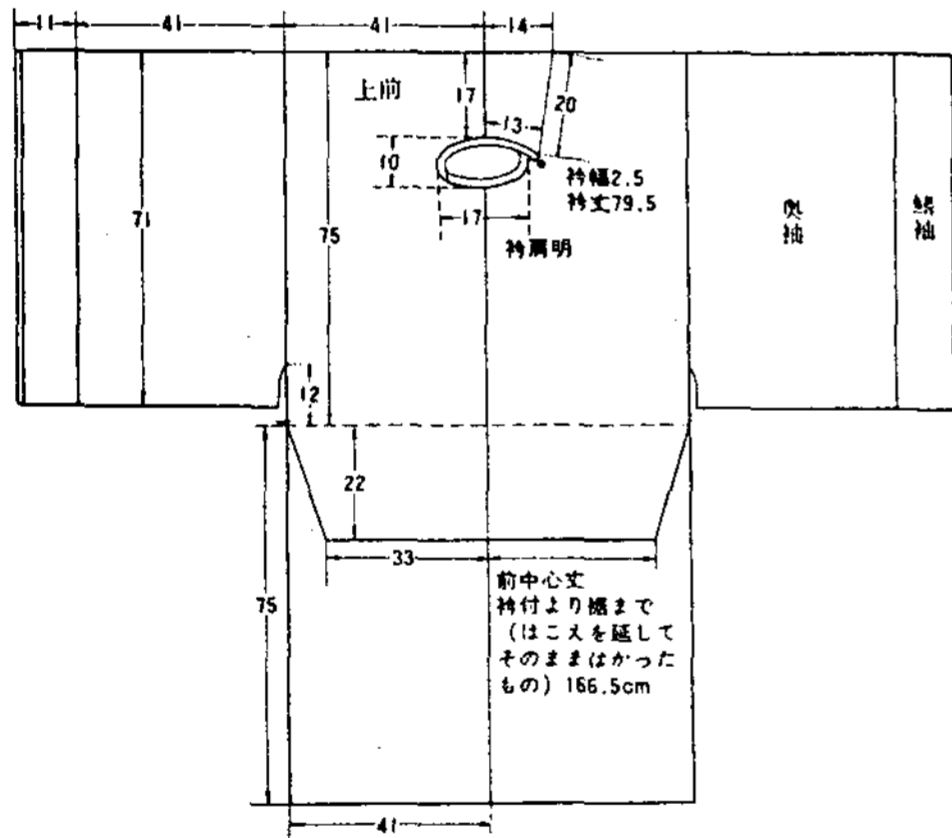


〈도 17〉 小直衣(일본장속도해)

에 난을 붙인 것이다. 狩衣直衣, 傍續이라고도 한다. 천황, 장군 등 높은 벼슬아치의 평상복이다.

(5) 無欄直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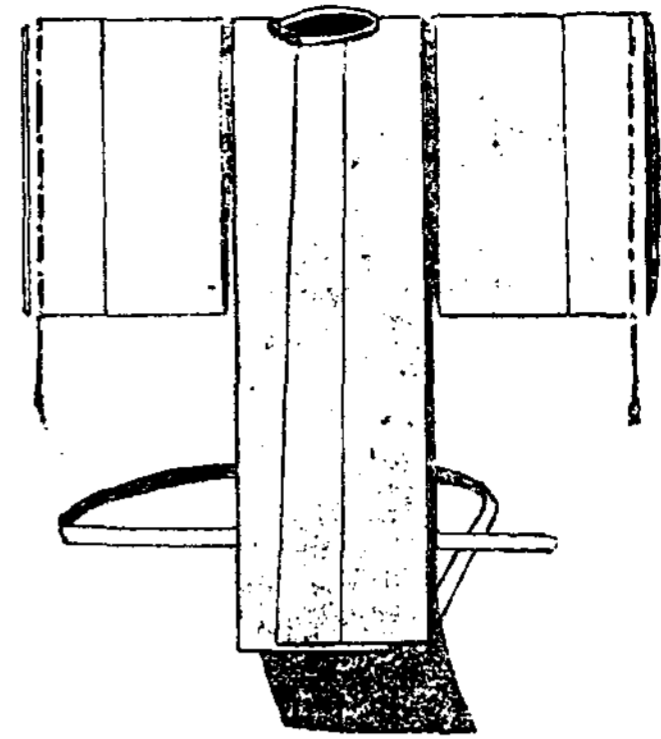
室町시대에 和歌山の 熊野速玉大社에 御神服으로 봉납된 2개의 유물로, 직의에서 난을 제한 것(도 18)과 난은 있으나 아리사끼(ありさき)가 없는 것이다.



〈도 18〉 무란직의(熊野速玉大社 御神服, 일본의복재봉사)

(6) 狩衣(도 19)

수의를 쥔액포가 변한 것으로 진동 윗쪽에 5寸 정도만 붙여져 있고 모두 트여져 있으며, 넓은 수구에 소매끈이 있는 경쾌한 옷이다. 원래는 麻布製の 신분이 낮은 계급의 옷으로 활동적이고 기능적이어서 상류층의 수렵복·야외복이 되었고 무관도 입었다. 鎌倉시대에는 直衣가 公服化되고 수의는 그 대신 사교의 공식복으로 되어 화려해지고 문벌과 연령에 따라 색, 옷감, 문양에 차이가 있게 되었다.



〈도 19〉 服色圖解의 狩衣(역세복식도설)

또한 武家禮裝이 되었다. 圖 19는 「故實叢書 服色圖解後篇(1816)」에 실려 있는 수의이지만 藤原·鎌倉시대 이래 변화가 없었으므로 형태는 같다.

수의를 색에 따라 흰색은 淨衣라 하고(絹, 무명), 퇴색한 紅麻製는 退紅(도 20), 衣와 袴 모두 白麻製는 白張이라 하며 하인用이다. 半尻는 수의형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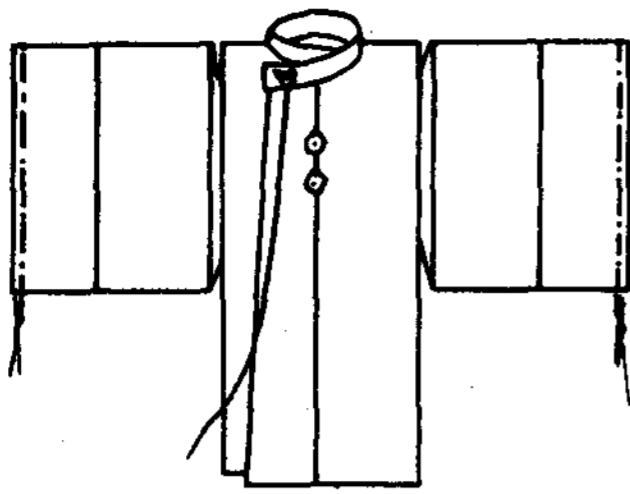
〈도 20〉 退紅(京都知恩院長, 역세복식도설)

만 앞보다 뒷길이가 1자 정도 짧은 것이며, 반대로 앞길이가 짧은 것을 褐衣라 하며 하인의 옷이다. 半尻는 江戸시대에는 소년복으로 동궁, 천왕, 撰家の 어린이들이 입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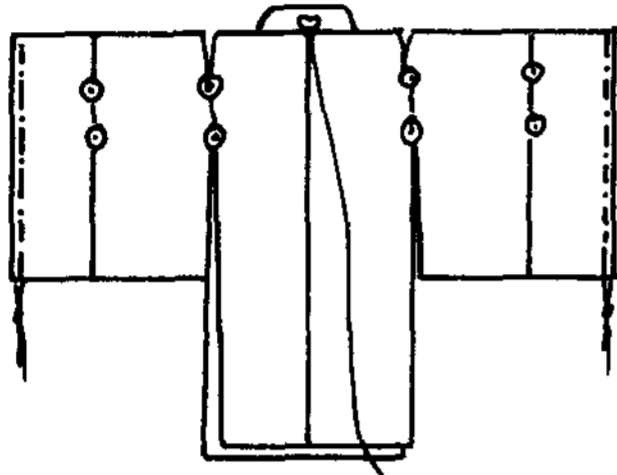
(7) 水 干

平安시대에 야외복으로 公家에서 입었고, 同形の 거친 것은 서민과 하급무사용이었다. 鎌倉시대에는 武家の 예복이 되었으며, 후에 直垂가 예복이 됐을 때는 소년, 하급무사, 종자에게 입혀졌다.

水干과 狩衣의 다른 점은 ① 깃고정방법이 깃의 끝부분과 뒷중앙에 달린 끈으로 묶는 점 ② 가슴과



<도 21-1> 수건 앞



<도 21-2> 수건 뒤(일본장속도해)

전동 뒷부분에 菊綴을 장식하는 점 ③ 길이가 짧은 점 ④ 착용법이다.

Ⅲ. 맺음말

일본은 중국의 단령을 천무천황(685) 때 칙령에 의해 천황이하 관리의 조복으로 입기 시작했고, 차츰 상·하, 남·녀도 입게 되었다. 제1기의 천황들은 遣隋使, 遣唐使를 중국에 보내 중국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으므로 단령의 변화는 중국과 같았다.

大寶令(702)은 唐制를 본따 禮服, 朝服, 制服을 처음으로 정한 것으로, 비로소 官位와 位階의 구별과 조정, 公·私의 경·중에 따라 차이가 있게 되었다.

12C 이후 단령이 일본식으로 변했는데 그 이유를 ① 견당사의 폐지로 중국의 영향을 덜 받게된 점 ② 國風化할 수 있는 힘이 축적되어 있었다는 점을 일본학자들은 들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서 ③ 당시의 정치와 사회를 반영한다. 즉 예복의 간략화는 천황권력의 弱화를 나타내며, 조복의 승격 및 딱딱함(위엄있게 보임)을 섭정 關白의 강화를 의미한다. ④ 일본인의 의식구조를 반영한다. 즉 왜소한 체구를 크고 당당하게 보이고 싶은 意識이 의복을 과장시키고 형식화시켰다고 생각한다.

변화된 점은 표 3과 같다.

연구 결과 필자와 일본학자와의 견해차이는 ① 제1기의 ㉠, 난은 주름없이 그냥 옷감을 붙인 것이다. ㉡, 단령이 남·녀, 상·하 넓게 입혀졌다. ② 제2기의 단령변화에는 고려의 영향도 컸다고 생각한다. 고려의 公服은 曲領大袖로 옷이 크고 넓으며 소매가 넓고 길었다.

참 고 문 헌

- 角川서점 편집부, 日本繪卷物全集 1권, 源氏物語繪卷(각천서점 소화 33년).
- 鎌倉室町の美術(대일본 인키화학공업주식회사, 소화53년).
- 掘越すみ 日本衣服裁縫史(雄山閣출판, 동경, 소화49)
- 松嶋順正 편 正倉院寶物銘紋集成 및 圖錄(吉川弘文館, 동경, 소화53년).
- 栗原強, 河村まぢる 時代衣裳の縫いら(源流社, 소화59년)
- 日本繪卷大成 13, 平治物語繪詞(중앙공론사, 1977).
- 日本繪卷大成 19, 住吉物語繪卷, 小野雪見御幸繪卷(중앙공론사, 1978).
- 日本の古典 7, 源氏物語(집영사, 1978).
- 일본의 고전 5, 竹取物語, 伊勢物語(집영사, 1978).
- 일본 초상화도록(京都대학 문학부 박물관, 1991).
- 日本の美術 17, 桃山の風俗畫(平凡社, 소화 44년).
- 일본미술全史 1, 원시·飛鳥奈良時代(미술출판사, 1971).
- 井筒雅風, 원색일본복식사(광림사, 소화57년).
- 町野とく, 正倉院御物伎樂裝束の復原的研究(奈良明新社, 나라 소화 50년).
- 平安の美術(대일본톤키화학공업주식회사, 소화63년).
- 敦煌文物연구소편, 中國石窟, 敦煌莫高窟, 一, 二, 三, 四, 五(평범사, 동경, 1980~1982).
- 大唐의 번영, 세계역사씨리즈(세계문화사, 동경, 1968).
- 중국미술전집, 繪畫編 2, 隋唐五代繪畫(新華書店北京發行所 1984).